

2019년도 표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사 30:23)

NEW
순복음Life
제36호

발행일 : 2019. 4.14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저는 송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이 지역 당진을 떠나지 않고 곳곳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이재동 집사입니다. 우리들 어렸을 적엔 대부분 살림살이가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 중 1남 6녀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없는 살림치고는 참 많은 사랑 받으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금이야 옥이야 귀한 아들에 학업도 중단하리만치 힘에 겨웠고 저는 그렇게 젊은 나이로 일찍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초등학교를 중퇴한 아주 어린 꼬마였지요. 그 어린 꼬마가 시작한 일이 바로 소금을 만들어내는 염전에 염부였습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하루하루 해결하며 산 세월이 펴이나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며 여느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고 처음 3~4년은 정말 가뭄에 콩 나듯 뜨문뜨문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욕심이 많은 아내 김남현 집사와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모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목사님과 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구나~ 감탄했습니다. 정말 자신들에 일처럼 나서서 챙겨주시던 모습들을 통해 지금 제 둔한 입술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전에 모습을 버리고 열심 있는 신앙을 살기 위해 다짐했고 조금씩 삶의 모습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세상적인 모습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신앙에 씨앗들을 하나씩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릴 때 그렇게 잘 들어오지 않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이제 마음 판에 새겨지고 은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던 중 ‘믿고 구하고 행하면 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심령에 깊숙이 들어와 주체 할 수 없는 감격을 받은 날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설교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벅찬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세상을 살면서 내 집을 가져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전 신용불량자이었기에 더욱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김남현 집사와 함께 힘을 합쳐 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일푼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간섭하심으로 지금의 축복된 집을 세워 주셨습니다.

제가 마흔이 넘어서면서부터 바닷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요~ 대부분 석문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해에는 유달리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도 많이 힘들어졌고요. 그런데 서산쪽에서 아는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에서 한번 일해 보라구요. 하지만 석문에서 잡히지 않는 고기가 서산에서는 잡힐까 의문이었습니다. 가볼까 말까 갈등하며 기도 중 아내가 한번 가보라고 권하더군요. 그래서 속은 썸 치고 한번 가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제게도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일 또한 분명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부들은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다 보니 배에 엔진을 떼어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엔진을 매일 분리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운항할 땐 다시 장착하고요. 작년 늦가을쯤이었을까요? 그날도 다른 날과 같이 분리 되었던 엔진을 장착해서 시동을 걸어 놓고 고기잡이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끝내고 출발하려니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속 썩인 적 없는 배라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하니 또 꺼지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할 수 없이 엔진을 다시 떼어 수리를 받으러 갔습니다. 수리를 끝내고 다시 바다로 돌아온 저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엔진을 수리하던 그 시간 바다엔 큰 돌풍과 눈보라가 심하게 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엔진에 문제가 없었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됐다면 그 위험한 상황에서 결코 제 목숨이 안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교회에서 제직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 맞다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계약서에 도장이라도 받은 듯 기뻛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 60을 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살아왔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제게 주어졌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남은 시간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 살 것입니다.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두서없는 간증을 마칩니다.



강난순 권사

1. 권사님의 어린 시절을 회상 해 주세요.

순성 성북리에서 2남 4녀 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했지요. 그 시절엔 거의 초등학교를 나오거나 학교를 아예 안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학교에 보내 주셔서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오빠가 동네에 작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와 동생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릴적 기억으로 부모님도 열심이셨고 형제자매들도 펍이나 열심있는 신앙이었습니다.

2. 남편과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중매로 만났는데 좋은 감정도 싫은 감정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첫눈에 반한다거나 하는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는데 공무원 사위를 너무나 선호하시는 아버지께서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될려니 그랬을까요? 그 전에 초등학교 교사와 중매가 들어왔었는데 싫어서 나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 떠밀리듯 한 결혼이었지만 저도 행복을 꿈꿨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똑 부러지는 성격이 저랑은 너무 맞지 않아 처음엔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3. 그 시절엔 아들 낳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잖아요? 딸 둘을 낳고 많이 불안하셨을텐데 권사님은 아들 낳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했습니다. 아들 낳는 한약이 있다 해서 그걸 먹었고, 아들 낳은 남에 집 금줄에 걸려 있는 고추를 따다 먹으면 낳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남편이 몰래 따온 고추도 먹어봤어요. 그 외에도 아들 낳기 위해 무진장 많은 일들을 했지만 다 소용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 와서 뭐하는 짓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시댁 식구가 무서워 교회에는 나가지 못했지만 속으로 내가 믿던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4. 시집살이는 얼마나 하셨나요?

누가 저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아버님은 머느리 사랑이 각별하셨기에 저를 너무 이빠 해 주셨고요. 어머님도 특별히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워낙 시골이라 일거리가 많았고 대가족이다 보니 챙겨야 할 식구들이 너무 많았었지요. 거기다 교회에 갈 수 없어 마음은 항상 공허했구요.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라 출근하고 퇴근하면 잠만 잤으니 낮에 같이 일 할 수 없어서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5. 권사님께서 힘들어 하실 때 남편은 어떻게 위로해 주시던가요?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옛날 남자들이 많이 그랬던 것처럼 아내의 힘든 모습을 찾아내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남편이 야속했고 이런 집으로 시집보낸 아버지가 몹시도 미웠습니다.

6. 하나님 믿지 않는 시대에서 어떻게 다시 교회에 다닐 수 있으셨나요?

집안 친척이던 강선출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구요. 그때 제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주 어렵게 신앙의 줄이 끊겼음을 말씀드리자 기도해 주신다고 우리가족 이름을 다 적어 가셨었습니다. 목사님의 능력의 기도 덕분에 아버님께서 저에게 교회 다니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때 어머니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걷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일어나 걸으라’는 음성을 들으셨고 집에서 가장 큰 방을 스무바퀴 넘게 가뿐히 걸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머님과 아버님 모두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7. 우리 당진순복음교회와는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강선출 목사님은 집안에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부담도 있었고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찾아야 할지 근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의 우리 한승권 목사님께서(그때는 전도사님) 당진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지금의 목사님과 만나게 하셨고 같이 창립멤버 중 하나가 되어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만나 너무 기뻐고 정말 많이 감사했습니다.

8. 교회에서 재정 관리를 펴어나 오래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셨나요?

목사님께서 하라 하시니 순종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도 없었구요. 모든 것을 손에서 내려놓은 지금 돌이켜 보면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 먹어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 되었나~ 하는 서럽고 서글픈 마음도 들고요. 지금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게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저 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9. 제가 그때 본 권사님은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시더라구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봉투는 두툼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친정어머니는 농사 지은신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십일조도 꼭 드렸구요. 그것을 보며 살았고 교육받았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나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걸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10. 하나님의 것(십일조)을 넉넉히 잘 드림으로 받은 축복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으셨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아버님을 통해 먼저 받았구요. 유산으로 시골에 논과 밭과 산도 물려 받았지요. 아~ 시골 집터도 제 것입니다. 지금도 현금이 돌지 않아 곤란 해 지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모든 필요를 채워 주고 계십니다.

11. 빈취와 은희 그리고 손녀딸 은율이 등 아기들을 봐 주셨었지요? 힘들지 않았나요? 아님 그저 이쁘기만 했나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애기를 워낙 좋아했는데 남편도 애기를 좋아해서 더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가끔 빈취나 은희의 안부를 물으며 궁금해 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12. 남편과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두 교회를 섬기려니 물질로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섬기던 교회를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좋은 마음으로 영산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도 찬성입니다.

13. 우리들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이 그러하듯 아들 승철이가 방황중입니다. 아들의 신앙을 위해 권사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승철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14. 새벽 제단을 거의 빠지지 않고 쌓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해 주세요~

남편이 구원받았습니다. 둘째 딸 선영이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고요. 선정도 남편과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요. 손녀딸 은율이도 기독교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살면서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 생각하려니 잘 떠오르지 않네요~

15. 지금 육신이든 영혼이든 연약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공개적으로 기도 요청 해 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서울 아산병원으로 치료 다닌지 7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협착증과 디스크,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가 있습니다. 이건 구역장님과도 약속한 것인데요. 예배드릴 때 졸음요~ 졸지 않으려 애쓰는데도 잘 안됩니다. 영혼의 연약함으로 인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놓고 더욱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때 졸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저를 위해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16. 권사님에게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고 평안한 안식처입니다.

성도의 고백

“제게 지식이 많이 있었더라면 어쩔 뻔 했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제가 살아가기에 적절한 지식만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서로 인사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갖을 때
어떤 집사님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 왔습니다.

그 고백의 말 한마디에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찌 들으면 뽕뽕 맞고 바보스런 고백이지만.....

설교 말씀에 은혜받은 집사님의 진실어린 작은 외침이었습니다.

주님 믿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았을 때에

나라는 존재는 약간의 얕은 지식과

나의 외모와

또 능력과 분별력이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받는 자라는 생각

한번쯤은 해 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한번이 아니라 자주 그런 착각에 빠지곤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 해 보면 교만함의 극치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알아가며

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서는

한없는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숙이게 했던,

그리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하시 한번 생각하게 했던

집사님의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제게 지식이 없어 참 감사합니다.



<기도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주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셔서 축복가운데
기쁨으로 행복에 삶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크신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지만
분평과 불만 오해와 불신의 모습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사는
염치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성장하게 하셨으니
교회를 향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은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행함으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4월

주님이 가신 험난했던 그 길.....
그 길을 따라 걷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가슴에 새기며
어떠한 역경과 환난에서도 승리하는 자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에 양식 삼아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더욱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인청자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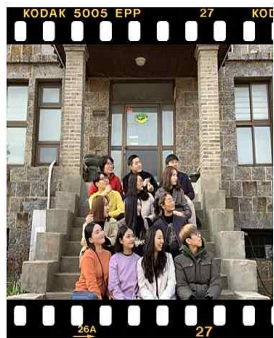
김경숙 성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표어처럼 새해부터 참 기쁜 소식들이 성도님들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움직이며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연초부터 올해는 성도 한명 당 한 영혼 전도하자고 힘 있게 말씀하셨고 성도들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예비 된 영혼을 만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가장 먼저 순종하며 전도에 열매를 맺은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아닙니다. 어찌보면 신앙의 순수함이 우리들 중에 가장 진하게 묻어있을 김경숙 성도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보다 한참 늦게 출발한 신앙의 발걸음이지만 열정은 누구보다 최고입니다.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에 궁금함이 있으면 믿음에 선배들에게 왜 그런지 꼬치꼬치 묻고 의문을 해결하는 사모함도 아주 크십니다. 지금은 가정 환경이 여의치 않아 저녁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계신데요~ 이 또한 우리 성도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길 원하며 기도하고 계시니 금방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였던 마리아처럼 전도한 친구 조명금 자매님과 함께 예쁘고 신실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는 김경숙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와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20:16)









우리는 다니엘 유초등부

따뜻한 날들이 지속되고 주변에선 꽃봉우리와 새싹들이 쑥스러운 듯 살며시 고개를 내미는 생명의 계절 3월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3부 순서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첫째 주는 우리 친구들이 지난달에 뽑은 마니또 친구를 공개하고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마니또 친구에게 작은 선물로, 또는 손편지로 마음을 전하고 챙겨주는 한주를 보냈는데요. 잘 챙겨 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너무 무관심해 마니또였던 친구가 서운해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서로를 챙겨주고 배려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둘째 주는 성경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줄도 못 외웠던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성경암송 대회에서는 아이들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한 덕분에 교사들이 생각한 것 보다 많은 성경을 외워 왔더라구요.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의 열심 있는 노력에 감동했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한 아이들은 분명 그 말씀같이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셋째 주는 찬양예배가 진행되었구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참 예뻐고 오히려 아이들을 통하여 교사들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 또한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넷째 주는 식물심기를 했는데요. 아직은 날이 좀 쌀쌀한 탓에 다른 모종은 나오지 않아 쌈채소 모종을 사와 심어 보았습니다. 청상추, 꽃상추, 치커리, 로메인 이렇게 네가지의 모종을 고사리 손으로 심고 토닥이고 물을 주어 심어 두었으니 날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아이들이 직접 수확해서 먹어 볼 수 있는 날도 곧 오겠지요?

마지막 주는 곧 있을 부활절 울동 연습이 있었습니다. 1,2,3학년과 4,5,6학년으로 나누어 울동 연습을 했는데요. 미리 보내 준 영상을 많이 보고 왔는지 한번만 가르쳐도 척척 잘도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 유치등부에 즐거운 소식이 있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초등부 울동단이 창단되었습니다. 이름은 ‘하이울동단’ 입니다.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자녀로써 죽어있는 영육이 아닌 살아있는 영과 육으로 주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이울동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경 숨은그림찾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대답하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 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눅 5장 4-6절)
(숨은그림 : 로켓, 케첩병, 펜촉, 담비, 바케트 빵)

* 모든 것 내려놓고...

-essay.359-

미움, 원망, 시기, 질투

거짓, 위선, 탐욕, 분노, 자절, 포기...

결코 자신을 위한 일일 수 없는데 마치 자신을 위한 일인 듯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빛을 향하여!



nooriart@naver.com

누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성경 가로 세로 퍼즐 <4회>									
5		6		9		10			
				9					
4						10			
				1			4		
		2							
3							6		7
3						8			
						8			
				7					
가로 문제					세로 문제				
1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 하갈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름 (창16:15)				1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로써 악처로 유명한 사람이다. (왕상21:25)			
2	유다지파 미스바 지방을 다스린 사람으로 그의 아들 살룸은 예루살렘 샘문 재건에 참여하였다. (느3:15, 11:5)				2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대치때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블레셋 장수 (삼상 17:4)			
3	사사 에훗의 부친 (삿11:1)				3	므낫세의 장남 (창50:23) (민26:29)			
4	다윗왕의 누이로써 요압 아버지 아사헬의 어머니 (삼상26:6) (삼하2:13)				4	디셉사람으로 아합왕과 아하시야 왕 시대에 사역하였다. (왕상 17:1)			
5	나훔과 밀가의 아들 (창22:23)				5	아굴라의 아내이다. (행18:2)			
6	갈릴리 지방의 회당장, 그의 12세 딸이 죽음에서 소생되었다. (막 5:21-24)				6	유대 21대 왕으로 애굽의 바로가 여호야김으로 고쳤다. (왕하23:36-37)			
7	구브로에 있는 거짓 선지자 박수로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소경이 되었다. (행 13:6-11)				7	고멜이 많은 호세아의 둘째 아들에게 상징적으로 준 이름 (호1:9 , 2:23)			
8	팔레스타인 서남부 지방에 사는 거인족의 조상 (민13:22)				8	바니의 자손 중 하나로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이방인의 아내와 이혼한 사람 (스10:37)			
9	하만의 아내 (에5:10,14)				9	다윗왕 때 에브라임 자손의 장관 (대상 27:20)			
10	에브라임의 자손으로 베레가의 아버지 (대하28:12)				10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으로 성벽재건을 방해한 사람 (느6:6)			

용서하는 용기

야망이 있는 한 젊은 회사원이 자기 회사에서 수억 원의 공금을 빼돌려 달아날 준비를 마쳤다. 다행히 이런 사실은 곧 적발되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나 사장의 질문에 젊은이는 '그렇다'고 답했다. 젊은이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이 받아야 할 법적 처벌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장은 의외의 질문을 던졌다.

"내가 자네를 용서하고 지금 그대로 일하게 해 준다면 앞으로 자네를 믿어도 되겠는가?"

순간 젊은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물론입니다, 사장님.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사장이 다시 말했다.

"좋네. 나는 자네에게 일말의 책임도 묻지 않겠네. 가서 일하게."

돌아서려는 젊은이에게 사장은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참 한 가지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네. 이 회사에서 유혹에 넘어 갔다가 관대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네가 두 번째야.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날세. 한 때 나도 자네와 같은 짓을 했지... 그리고 자네가 받은 용서를 나도 받았다네."

‘뿌리 깊은 희망’ 중에서 -

용서는 용서를 낳고 그 용서는 다시 용서를 낳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그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에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 - 톨스토이 -

부활절 계란의 유래와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지 3일 만에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기독교 최대의 축제 부활절.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부활
절 계란 나눔의 유래는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많은 설이 있을 뿐 정확한 유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계란이 생명의 끊임없는 연속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어 다시 계란을 낳고 이런 생명의 끊임없는 연속은 예수님의 부활에 비유한 것이다. 또한 단단한 껍질을 깨고 태어나는 병아리의 모습이 마치 죽음이라는 껍질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같아서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로마의 ‘모든 생명은 알에서부터 나온다’는 속담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저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직업이 계란 장수였다는 설, 십자군 전쟁 당시 로잘린드 여사가 부활절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계란을 나누어 주었다는 설까지 다양한 주장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란이 ‘생명’을 의미한다는 점 외에는 어떤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계란 외에도 부활절을 상징하는 것으로는 토끼가 있다. 부활절 토끼와 관련된 풍습은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정설이다. 부활절 토끼가 착한 아이들에게 초콜릿, 캔디, 부활절 계란 등을 준다고 여겨져 아이들은 토끼를 위한 집을 만든다. 이 풍습은 독일에서 미국으로 전해져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풍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유럽에서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양에 비유해 어린양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승리의 어린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기념한다. 주로 양 모양의 음식을 만들거나 부활절 기념 장식을 만든다.

미국에서는 백합을 부활절의 상징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백합은 피는 시기도 부활절 즈음해서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미(美)와 완전한 선(善)의 상징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밖에도 부활 주일에 흰 옷을 입기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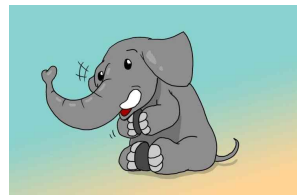
유머

숲속에 웅기종기 개미 마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급히 지나가던 코끼리가 밝는 바람에 그만 여러 마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족장 개미! 복수를 하기 위해 용감한 열 마리를 선발해 코끼리를 찾아 갔습니다. 잠자는 틈을 타 살금살금 기어 오른 특공대원들이 코끼리 목에 이르자 족장에게 말했습니다.

“족장님! 어지 할까요? 생포를 할까요? 아니면 죽여버릴까요?”

흥분한 족장이 하는 말

“당장~ 죽여! 목을 졸라! 목을!!”



시사용어 Briefing

미닝 아웃 (Meaning out)

신념을 뜻하는 미닝(meaning)과 벽장 속에서 나온다는 뜻의 커밍아웃(coming out)이 결합된 용어로, 과거에는 남들에게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던 정치적 사회적 신념을 소비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 등 영향으로 전통적인 소비자 운동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된다.

코즈마케팅 (Cause marketing)

환경이나 빈곤 등 사회적 이슈를 활용하는 기업의 마케팅 기법을 말한다. 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기업의 선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이러한 이미지와 소비자의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통해 기업이 추구하는 이익과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산다.

큐싱(Qshing)

QR코드(Quick ResponseCode)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QR코드를 통해 악성 링크로 접속을 유도하거나 직접 악성코드를 심는 방법이다. 스미싱(Smishing)에서 진화된 금융 사기 기법으로 QR코드를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도록 유도한 뒤 보안카드, 전화번호 등 정보를 탈취해 소액결제, 자금이체 등으로 돈을 빼 간다.

리픽싱(Refixing)

주가가 낮아지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낮춰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환 가격은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가격을 말하며, 발행사는 전환사채 전환가격을 낮춰 투자자 이익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운전졸업 어떨까요?

요즘은 흔히 말하는 100세까지 장수하는 100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점점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증거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들 또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많이 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운전을 못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할 때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킨다면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요즘 운전졸업을 권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지면 분별력이나 순발력 등 대처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 운전하면서 생기는 돌발 상황에 대처가 미흡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사고를 낸 사람도 곤욕스럽기는 매 한가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일부에서는 일정 연세가 되면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는 운전졸업을 권하고 있다.

연예인 중에는 양택조氏가 면허증을 반납하고 두벽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여러 번을 갈아타야 할 때는 택시 등을 이용해 이동한다고 한다. 조금 불편 하지만 운전하면서 들어가는 차량유지비나 신경 쓰는 것에 비하면 지금의 생활이 오히려 더 편리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게 된다. 운전졸업 또한 강요가 아닌 선택이지만 본인이 운전하면서 운전대가 무서워진다면 운전을 졸업하는 것도 나쁜 아닌 타인을 위해서도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다.

감사릴레이

-강연순 권사-

이 작은 지면을 통하여 목사님 이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결혼식을 잘 할 수 있게
하심과 좋은 날씨 주심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참 세월이 빠르네요. 당
진으로 이사 온지도 벌써 24년이나 지났습니다. 우리 딸 8살 아들 6
살 때 강유순 권사님 전도로 당진순복음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쪽 교회를 섬기고 나의 교회가 되었지요. 그리고 성도님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 별
써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어 등직하고 멋진 사위가 생겼습니다. 딸과
사위가 목사님 말씀과 구역장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여 칭찬받는 부부가 되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풍
성히 우리 교회를 채우시고 가정도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
립니다.

다음 릴레이 - 현덕규 권사님



성경 가로 세로 퍼즐 <정답>

브	두	엘		호	가				
리		리		세	레	스			
스	루	야		아		무	실	레	못
길		김							
라				이	스	마	엘		
		골	호	세			리		
마		리		벨			야	이	로
길	르	앗				야			암
						아	낙		미
				바	예	수			

<성경 인물 소개>

갈렘(Caleb)

뜻:개

유다지파 여분네의 아들.

[1] 출애굽 후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정탐군 중의 한 사람([민13:6,34;19](#)).

가나안에 쳐들어가 승리할 것을 주장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렘 뿐이었다([민 14:9](#)).

그는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였다([민14:24](#), [30](#), [38](#), [신 1:36](#))⁴) 여호수아와 갈렘만 가나안에 들어 갈수 있었다 ([민 14:39](#)).

[2] 헤스론의 아들로 여라므엘의 동생(대상 2:18, 42)

갈렘은 "개"라는 뜻입니다. 갈렘은 그니스 사람으로 유다지파 여분네의 아들이었습니다. 갈렘은 성실한 사람이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이 있었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협력하는 숨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습니다. 갈렘은 건강의 축복을 받아 장수하였으며 건강에 대한 간증을 남길만큼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수14:10).모세가 12지파의 대표를 가나안땅에 보내어 정탐할때에 갈렘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가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과 승리를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모세와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갈렘은 정신적으로 이스라엘백성에게 큰 용기를 북돋워주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갈렘이 가나안땅에 정착하여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치고 그 거민을 쳐서 정복하였습니다.

또한 세벨을 쳐서 빼앗는 자에게는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웃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악사를 아내로 맞게 되었습니다. 갈렘은 여호수아와 대등한 영적인 사람이었으나 여호수아를 앞세워 일하는데 마음의 불편이 없었고 여호수아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자리에서 불평없이 만족스럽게 헌신하는 갈렘을 배워야 합니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총서지방회 정기지방회 / 4월 1일 오전11시
2. 봄여행 / 4월 8일 오전9시 교회출발
3. 루디아여선 헌신예배 / 4월 14일 오후7:30
4. 고난주간 / 4월 15일~20일 아침금식
5. 성찬식 / 4월 18일 오후7시
6. 부활절 율동대회 / 4월 21일 오후5시

● 공지사항

1. 4월 생활실천표어 / 주님의 그 길을 걸으라
2. 신앙서적 / 위기의 그리스도인 ‘마틴 로이드 존스’ 저

● 이달의 교우소식

1. 한승권 목사 / 총서지방회 회장 연임
2. 새가족등록 / 조명금성도, 전도 : 김경숙성도
3. 동유럽종교개혁지순례 / 목사부부 4월 22일 ~ 5월 3일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